구역예배 말씀

제4권 (2단원 : 십자가의 도)

(제11과)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

- **본문** : 로마서 5:1-11
- **요절**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 **찬송** : 138장(새찬송가 151장), 469장(새찬송가 412장)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苦海)에 비유하여 왔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것조차 괴로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도를 닦고 고행을 함으로써 인생의 고뇌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 문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불화를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여 복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길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룩하신 화평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때에는 땀 흘려 수고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 뱀 곧 사단의 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그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영적 죽음을 뜻합니다. 비록 육신은 살아서 희로 애락을 느끼며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그 영적 상태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뿐더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므로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9,10)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단지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는가 하면, 같은 민족 간에도 출신이나 빈부, 문벌 따위를 내세워 서로를 차별하며 불화합니다. 심지어는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가족 간에도 불화는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화해를 소원하고 평화 운동을 전개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할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어 줍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으며 또한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받은 데 대한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 자연히 화평한 분위기를 정착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 자신과도 갈등하며 불화 가운데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인해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편협한 사상을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의 화해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둘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가능케 하여 초대 교회 때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미움을 제거하고 참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3.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정죄 의식을 버리고 늘 기쁨과 감사로 가득찬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정죄 의식에 사로잡혀 우울하고 비관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은 자신이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8,19)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책이 있으나 성도들이 받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 이웃에게 힘써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직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불신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심령들이 날로 더해지고, 또한 이 사회는 화해와 온정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과 불화한 데서 비롯되었듯이,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